



2020년 6월 28일(제988호) 연중 제13주일(교황 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하느님의 축복이 내리는 이웃 사랑의 삶”

오늘은 연중 제13주일이자 교황 주일입니다. 그 직책에 맞는 하느님의 은총이 내려지겠지만 교황님 자신도 짓누르는 중압감과 책임감 때문에 늘 고뇌와 시련 중에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지혜와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도록 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예언자를 예언자로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마태 10,41)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자의 참 본분은 사람들에게 하느님 뜻을 분명하게 전해 주는 것이었지요. 예언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 회개를 통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마태 10,39)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 자선과 선행을 베푸는 삶이 그리 쉽지는 않지만 그러한 삶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로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마태 10,42)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옆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에게 베푸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제1독서 열왕기 하권의 수넬 여인의 이야기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 예언자를 친절하게 대접하고 맞이한 이 여인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내려 아기를 갖게 됩니다. 이웃에 대한 선행의 결과로 하느님의 축복이 내려진 것이지요.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과 착한 행동 하나 하나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느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알아주시어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위안 삼아 기쁜 마음으로 이웃을 위한 선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위한 선행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 죄악의 삶에서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부활의 삶이요, 주님 안에서 함께 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삶, 그리하여 서로가 깊은 친교와 사귄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깨달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길이요, 그 길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평화를 맛보고 아름답고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박희진(요셉) 신부  
이기자(27시산) 성당 주임

- 제 1 독 시** 2열왕 4,8-11.14-16나
- 회 답 송** ◎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 제 2 독 시** 로마 6,3-4.8-11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너희는 선택된 겨레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니,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위업을 선포하여라. ◎
- 복 음** 마태 10,37-42
- 영 성 제 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 최여겸 마티아



성인명: 최여겸 마티아 (崔汝謙 Matthias)

신분: 양반, 순교자

활동연도: 1763-1801년

전라도 무장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최여겸(崔汝謙) 마티아는, 일찍이 윤지충 바오로에게서 천주교 교리를 배웠다. 또 혼인한 뒤에는 이존창 루도비코 곤자가를 만나, 다시 교리를 배우고 아주 열심히 신자가 되었다. 당시 그의 처가는 충청도 한산에 있었는데, 그가 이 루도비코 곤자가를 만난 것도 바로 이곳이었다.

이후, 무장으로 돌아온 최 마티아는 교리를 실천하는 데 열중하였다. 또 자신이 깨달은 신앙의 진리를 이웃에게 전파하는 데 힘써 많은 사람들을 입교시켰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최 마티아는 일단 한산 처가로 피신하였다. 이때 무장에서는 그가 입교시킨 신자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신자들이 체포되었으며, 그들을 문초하는 과정에서 그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 결과 최 마티아는 4월 13일 한산에서 체포되어 일단 그곳에서 문초를 받고, 감사의 명에 따라 무장으로 이송되었다.

최 마티아가 무장 관아에 이르자, 관장은 곧장 그에게 형벌을 가하면서 문초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어떠한 형벌로도 그의 신앙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다시 전주 감영으로 이송하도록 하였다. 이곳에서도 최 마티아는 다시 문초와 형벌을 받았지만 조금도 굴복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옥중에서 열렬한 신자인 한정흥 스타니슬라오와 김천애 안드레아를 만나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다.

최 마티아와 동료들은 그 후 한양으로 압송되어 포도청과 형조에서 문초를 받았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형조에서는 1801년 8월 21일,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하였고 각각 고향으로 보내 처형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따라 마티아는 고향인 무장으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곳 개갑 장터(현, 전북 고창군 공음면 석교리)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그때가 1801년 8월 27일(음력 7월 19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38세였다.

##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 생명 돌보기



최근 내가 무얼 열심히 했나  
돌아보니,  
작은 화분에  
물주는 일이 생각났다.  
큰 그 무엇이 아닌,  
작은 생명을 돌보는데

열심히했구나 하는 생각에  
그래도 참 다행이다 싶다.  
큰 것, 높은 것,  
귀한 것이 아닌.  
작은 생명을  
돌보는 사람이고 싶다.

상화이야기

율리우스 2세의 초상



라파엘이 그린 교황 율리우스 2세 그림 이전에 교황 초상화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등 집무를 보는 모습으로 주로 그려졌었다. 그러나 라파엘은 깊은 사색에 잠겨있는 교황을 그렸고, 이 그림을 본 동시대인들은 교황이 자신의 눈앞에서 살아 숨 쉬는 것 같다는 평을 남겼다.

초록색을 배경으로, 붉은 교황복을 입고 붉은 의자에 앉아 있는 교황을 그림으로써, 색채의 대비를 통해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깊은 생각에 잠긴 교황의 정신성을 강조하였다.

라파엘, 1511년~1512년 제작  
나무 위 유화, 108x87cm  
런던, 내셔널 갤러리

교황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낸 이 그림은 후에 교황 초상화의 전형이 되어, 벨라즈케즈를 포함한 많은 미술가들이 초상화에 이 그림을 모방한 그림을 남겼고, 현대 미술가인 프란시스 베이컨은 라파엘의 이 그림을 바탕으로 인간에게서 육체를 걷어낸 정신성만을 강조한 그림을 창조해내었다.

김은혜(엘리시벳)

교 구 소 식

군중포럼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13주일: 중평 103위 성인 유윤상 신부

◆ ‘군중의 시김’ 인내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 군중교구 ‘잇숨 생기대’ 단원모집

대상: 성가를 통한 군선교에 관심있는 청·장년 (군 자녀 및 가족 포함)  
정기연습: 매주 화 20:00, 용산 군중교구청  
문의: 홍민영 비비안나 010-3837-503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밋추를 따르” -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리리.’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21,19)